

미얀마  
방정환 기금

어린이는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계시

사라진 어린이합창단원



달라 사원학교 정문

4월 29일, 지휘자 민성숙 선생이 양곤의 달라 사원학교로 향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서 사방을 둘러 보지만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번에는 마중 나온 아이들이 팔짝팔짝 뛰며 반겨 주었는데... 어찌 된 거지? 미얀마는 4, 5월이 가장 더워 방학이다. 하지만 미리 연락했는데? 이들을 기다린 후에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몇몇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돈 벌러 나가야 하는 방학

사원학교 학생들은 방학이면 돈 벌러 나가야 한다. 민 선생을 눈 빠지게 기다린 아이들도 부모 강압에 못 이겨 돈 벌러 나갔다. 그 어린 것들이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걸까?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하고 한 달에 우리 돈 6만원 받는단다. 하루 2천원 풀이다. 5월 1일, 아이들이 모였다. 그래도 3명이 보이지 않는다. 끝내 부모를 설득하지 못해서 일 것이다. 얼마나 오고 싶을까?



어린이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

“14살이 안 된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만들며 한 선언이다. 그 시절 우리의 어린이도 노동에 내몰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요, 어른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날이었다.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에 외친 선언은 세 가지였다.

1. 어린이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예우하라.
2. 14살이 안 된 어린이에게 돈을 주던, 안 주던 일을 시키지 말라.
3. 어린이에게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라.

지금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의 이 같은 선언에서 비롯하였다. 이제는 어린 나이에 노동에 내몰려 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도와야 한다.

어린이날이 없는 미얀마

미얀마의 아이들은 어린이날이 있는지도 모른다. 5월 5일,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맞아 민성숙 선생이 선물을 한 아름 안고 아이들을 만났다.

예쁜 머리핀과 땀 닦을 수건을 선물했다.

‘애들아, 어린이날이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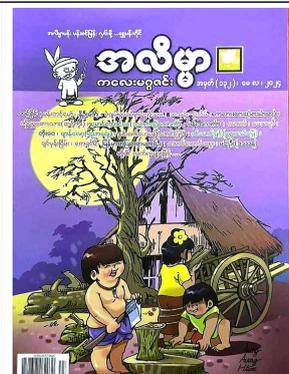




## 미얀마 어린이합창단을 위해 기부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고재오 김갑성 김광기 김세현 김양우 김연식 김영희  
김 정 김현욱 김현정 민계숙 민성숙 박순애 박향림  
백남호 백진양 서수진 서지영 성일경 성주일 성희진  
심혜숙 양재은 오세현 원영철 유용운 이명주 이성순  
이희정 정나원 정역순 조광희 조천희 주혜란 천만용  
최관용 최광익 한소운 한치만(위 39명).

▶ 김현정 님이 특별히 412,000원을 더 보내주셨어요.  
기금계좌 : 국민은행 763637-04-004336(한빛재단)



5월호 어린이잡지  
표지

우리 「방정환  
기금회원」들이  
매월 137곳의  
학교와 보육원,  
마을도서관에  
어린이잡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어린이잡지를 선물해주신 귀한 분들

( )은 입금 월

- 월 132,000원 : 김윤원(3, 4)/ 재단이사, 미국 교민
- 월 66,000원 : 스텔라(3, 4)/ 미국 교민)
- 월 50,000원 : 백진양(3, 4) 최재화(3, 4)
- 월 30,000원 : 김광숙(3, 4) 김원경(3, 4) 이택규(3, 4) 조재선(3, 4)  
최광규(3, 4)
- 월 20,000원 : 김명국(3, 4) 황찬원(3, 4)
- 월 15,000원 : 김부예(3, 4) 김정숙(3, 4) 예옥석(3, 4) 이정애(3, 4)  
조정복(3, 4) 최정복(3, 4)
- 월 12,000원 : 성경희(3, 4)
- 월 10,000원 : 강수연(3, 4) 강예슬(3,4,5) 강제숙(일산/3, 4) 구은희(3, 4)  
구자명(3, 4) 권지명(3, 4) 김정화(3, 4) 김혜명(3, 4) 박봉희(3, 4)  
박정희(3, 4) 손경희(3, 4) 유문숙(3, 4) 이지영(4) 정영만(3, 4)  
정현필(3, 4) 조수연(3, 4) 최영삼(3, 4) 한동훈(3, 4)
- 월 9,000원 : 김유재(3, 4) 심선우(3, 4) 최명숙(3, 4)
- 월 6,000원 : 김순이(2, 3, 4) 배일택/엄지은(3, 4) 윤소암(3, 4) 이민희(3, 4)  
최정임(3, 4) 현은옥(3, 4)
- 월 5,000원 : 김미숙/김민호(3, 4) 김원숙(3, 4) 김원심(3, 4) 김정묘(3, 4)  
박정애(3, 4) 배순호(3, 4) 서동욱(3, 4) 유주희(3) 윤신숙(3, 4)  
한미자/정의정(3, 4)
- 월 3,000원 : 강제숙(3, 4) 김미경(3, 4) 김병진(3, 4) 김순자(3, 4)  
김연수/김인숙(3, 4) 김연옥(3, 4) 김원애(3, 4) 김원희(3, 4) 김장순(3, 4)  
김종배(3, 4) 김주환(3, 4) 김홍원(3, 4) 김홍주(3, 4) 노갈용(3, 4) 문해성  
(3, 4) 민성숙(3, 4) 배성재(3, 4) 배수현(3, 4) 배순석(3, 4) 배재영(3, 4)  
배진영(3, 4) 백마강(3, 4) 백정현(3, 4) 서판임(3, 4) 손미연(3, 4)  
심혜숙(3, 4) 안영실(3, 4) 오세현(3, 4) 오순희(3, 4) 오승선(3, 4) 윤치영  
(3, 4) 이미경(3, 4) 이수원(3, 4) 이연희(3) 이유진(3, 4) 이은옥(3, 4)  
이풍연(3, 4) 이현숙(3, 4) 이현주/최희자(3, 4) 임경희(3, 4) 임승규(3, 4)  
전교수(3, 4) 정미선(3, 4) 정성용(3, 4) 조말연(3, 4) 최광선(3, 4)  
최종흙(3, 4) 한영원(3, 4) 홍복표(3, 4) 홍혜경(3, 4)

### 미얀마인 회원

- 월 2500원 : 틴카잉(3, 4), 난다코코(3, 4), 배찬다(3, 4), 조린(3, 4)
- 월 2,000원 : 띠띠쉐(3, 4), 틴커투(3, 4)



## 방정환 선생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의 방정환 선생처럼 미얀마의  
전기 없는 농촌학교와 보육원에 어린이잡지를 보내주세요.

방정환기금 입금계좌  
국민 640601-04-006175  
신청전화 : (02) 393-0661  
(월 3,000원부터)